

다니엘서 - 번호 102

메신저의 삼중적 적용: 예언적 역동성의 규명

Jeff Pippenger

2024-02-29

엘리아의 세 가지 적용은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기간 동안 메시지, 사자, 그리고 운동을 다루는데, 그 기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하여 은혜의 시기 종결까지 계속된다. 집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와 섞여 있는 시기에서, 최후의 일곱 재앙에서 그분의 심판이 자비 없이 쏟아지는 때까지 점차 격화된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대한 삼중 적용은,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기에 14만 4천의 인침 기간을 밝혀 주는 기별과 사자, 그리고 그 운동을 다룬다. 그 기간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며, 그때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이 시작된다.

세레 요한은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9장 27절의 성취로 언약을 확증하시도록 길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셔서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길을 예비했는데, 이는 그분이 삼 년 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행하신 일이었다. 실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레위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성전을 실제로 정결케 하신 사역은 예언의 성취였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구절은 말라기 3장을 성취하시며 제자들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일부였다.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성전이 헐릴 때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밝히셨다.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는 헤롯이 진행해 그해에 완공된 실제 성전의 개축에 사십육 년이 걸렸다고 그들이 덧붙였다. 예수께서는 천사와 성령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말씀 안에 확립해 두신 예언의 말씀과 관련된 규칙들 가운데 하나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는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는 예언적 본보기를 제시했다. 그는 성전을 상징하는 숫자 '마흔여섯'의 예언적 열쇠를 제시했다. '마흔여섯'은 모세가 산에서 성전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머물렀던 날수였다. '마흔여섯'은 인간의 성전을 이루는 염색체의 수이다. '마흔여섯'은 이교주의에 의해, 그리고 이어서 교황주의에 의해 짓밟힌 영적 성전의 회복이 성취된 연수(1798년부터 1844년)이다.

두 차례의 성전 정결에는 '사흘=사십육 년'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다. 이는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표한다는 원리를 포함한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예고였다. 두 차례의 정결은 한 부류에게는 오해되고 다른 부류에게는 계시되는 한 가지 진리를 나타낸다.

두 번의 정화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여 '음란한 독사의 세대'가 되어, 그 표적이 그들에게 직접 설명되고 있는데도 표적을 구하는 시기를 지목하는데, 주어질 유일한 표적은 성전이 파괴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표적이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 그때 서기관들 가운데 몇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에게서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세대에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34, 38-40.

이 모든 예언적 역동성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시는 세 가지 성취 모두에서 나타나며, 그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것과 같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작은 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두를, 곧 양과 소까지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엮으셨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 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이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13-22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은'과 믿음을 상징하는 '금'처럼 레위 자손들을 정결케 하고 또한 정련할 것이었다. 언약의 사자는 자신의 예언적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제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정련하도록 주어진 것이었다. 그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시험을 의미하며, 그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시는 때에 레위 자손들은 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정련되어 정결하게 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쪽정이가 알곡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영심이 많고 자기의에 차 있었으며, 겸손한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으므로 예수께 등을 돌렸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 영혼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시험을 받는다. 진리가 마음에 절실히 다가올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분노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감을 입으셨던 그 제자들처럼 실족하여 떠나가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린다." 시대의 소망, 392.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시험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영적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육체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관해 그분이 하신 것과 동일한 예언적 표상이었다.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앞서고 그것을 대표한다는 원칙을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어려운 말씀'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돌아서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일은 요한복음 6장 66절(666)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나타내며, 그 법령은 1844년 10월 22일로 예표되었고, 그것은 다시 갈보리의 십자가로 예표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가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66.

요한복음 2장에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묘사한 예언을 '기억'하게 하셨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열심'과 '질투'가 같은 단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시편 69:9.

하나님의 열심, 곧 그분의 질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하나님의 성품의 한 요소를 나타내며,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질투가 삼사 대에까지 나타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령께서는 언약의 사자가 이루시는 정결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셨다. 다만 마지막 세대의 잔이 가득 찰 때에도 늘 세 번째 세대의 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서 있다. 그 세대는 음란한 독사의 자식 같은 세대다.

모세는 네 번째 세대를 대표했으며, 그때 모세는 46일 동안 성전 건립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그 기간에 그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질투가 셋째와 넷째 세대에 나타난다고 밝힌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네 자손을 사백 년 동안 학대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지나면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13-16.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에 베드로가 '신령한 집'이라고 부른 기독교 교회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 역사 동안 하나님은 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두 차례 그분의 질투를 나타내셨다. 1844년에 하나님은 밀러파의 영적 성전을 세우셨고, 또다시 이전에 선택하신 백성을 지나치셨다. 그 역사 속에서 언약의 사자는 1844년 10월 22일에 홀연히 임하셨다.

그의 나타나심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준비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이 가까워지면서, 개신교도들과 밀러파 가운데 두 부류가 시험을 받았다. 개신교도의 시험은

1798년에 첫째 천사의 도래로 끝의 때가 시작될 때 찾아왔다.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기" 위한 메시지가 1831년에 공식화된 후,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힘이 실렸을 때 개신교도들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1844년 4월 19일에 개신교도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여 바벨론의 딸들이 되었다.

그때 둘째 천사가 도래했고 밀러파 신자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으며, 정결과 정화가 이루어졌다.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서터 야영회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입었을 때, 밀러파 신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가르치는 시험이 이루어졌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한 것은 기름이었는데, 그것은 한밤중 외침의 예언적 메시지였다.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도착했을 때, 성전은 (사십육 년에 걸쳐) 세워져 있었다. 그때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셨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이르시는 오십은 다니엘 8:14에 나타나 있고,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는 것은 다니엘 7:13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말라기가 예언한 바인데,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묘사하신 바, 신랑이 혼인 잔치에 오는 것으로도 표상되어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6.

그때 언약의 사자가 말라기 3장에서 레위의 아들들로 지칭된 밀러파 제자들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갔던 많은 이들이 셋째, 곧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의 기별을 거절하였고, 마지막 호소가 있을 때에도 비슷한 입장이 취해질 것이다.

이 비유의 모든 점은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가운데 하나로 표상된다. Review and Herald, 1899년 10월 31일.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입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파 운동에 합류했다. 이어 1844년 4월 19일에는 많은 무리가 그 운동을 떠났다. 1844년 10월 22일에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이들이 약 오십 명이었다. 셋째 천사의 빛을 처음 따라간 이들의 수가 대략 오십 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이 '마지막 시험의 기별인 셋째 기별을 거절했다'고 들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시어 하늘 성소의 빛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경험으로 나아가 따랐던 오십 명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열어 보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흠어져 있었다. 그때 그들의 실망은 첫 번째 실망보다 더 컸으나, 화잇 자매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의 실망은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실망만큼 크지는 않았다.

두 개의 평행한 역사 모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실망한 이들에게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열어 주셨고, 1850년까지 화이트 자매는 주께서 그때 다시 손을 펴셔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1850]년 9월 23일,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그분이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손을 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흠어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아 찢겼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흠어짐의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거의 효과가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펴신 모으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의도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모든 이는 연합하여 이 일에 열성을 내야 한다. 나는 이제 모으는 때에 우리를 이끌 본보기로 흠어짐의 때를 들먹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그때 하신 것 이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설교되는 것만큼이나 지면에 게재되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흠어졌고, 그 역사에서 사흘 후에 그분은 흠어진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 1844년이 끝난 지 대략 3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흠어진 자신의 양떼를 모으기 시작하셨다. 그 역사에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박국의 두 도표 중 둘째 것을 출판하게 하셨는데, 그 도표는 1850년 말에 제작되었고, 이어 1851년 1월에 리뷰 앤드 헤럴드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1843년 도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성전을 정결케 한 그 기별의 물리적 표상이었다. 셋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가고자 계획하셨으나, 그들은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반역하였고, 그리하여 옛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모두가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정해졌다. 셋째 천사의 빛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기별의 물리적 표상인 1850년 도표를 지니고 믿음으로 계속 따라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래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 없는 열 정탐꾼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다.

"만일 재림교인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개되는 섭리를 따라 연합하여 나아가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수고와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그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망 뒤에 이어진 의심과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많은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였다. ...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만일 재림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연합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는가!" 복음전도, 695.

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한 백성을 정결케 하시도록 길을 예비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이루었지만, 재림운동의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1856년까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빠졌고, '일곱 때'에 관한 진보된 빛을 거절하였으며, 1863년에는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반역을 점점 격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1863년의 반역은 열 정탐꾼의 반역으로 예표되었다. 광야에서의 40년 방향의 끝에 고대 이스라엘은 같은 시험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 이는 현대 이스라엘이 처음의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을 보여 주었다.

가데스에서의 열 명의 정탐꾼의 반역은 사십 년 후 다시 가데스에서 반복되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반역으로 인해 사십 년 동안의 광야 방황이 초래되었는데, 이는 1863년의 반역을 대표한다. 그때 현대 이스라엘은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스스로의 방황을 불러왔다. 사십 년이 끝날 무렵 옛 이스라엘은 다시 가데스로 이끌림을 받았고, 이로써 1863년의 반역 때 밀러주의 재림운동을 가려냈던 그 시험이, 언약의 사자가 다시금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실 때 반복될 것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길르앗과 바산을 정복하는 가운데, 거의 사십 년 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을 긴 광야 방랑으로 내몰았던 사건들을 떠올린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러 면에서 옳았음을 알았다.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매우 컸고,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에 비하면 히브리인들은 그저 난쟁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조상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때에는 그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덜 어려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분이 앞서 가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시려고 말벌을 보내시겠다고도 하셨다. 그때는 여러 민족의 두려움이 아직 널리 고조되지 않았고, 그들의 전진을 막기 위한 준비도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진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은 경계가 삼엄하고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나아가야 했고, 그들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해 온 크고 잘 훈련된 군대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옥과 시혼과의 대결에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진하라고 명하셨던 때보다 훨씬 더 엄혹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전진하기를 거부한 이후로, 그들의 길에 놓인 어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그분은 그들을 다시 같은 지점으로 이끄시고, 두 번째에는 그 시험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이전보다 더 엄혹해진다. 이는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딜 때까지 계속되고, 혹 그들이 여전히 반역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분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 남겨 두신다." 족장과 선지자, 436, 437.